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스가랴 13:7-9, 요한계시록 22:16-21

최정웅 목사님

지난 일 년 동안 우리는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교회로서 인도받아 왔다. 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하며, 어떤 언약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두고 말씀을 일 년 내내 나누어 왔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다.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면서 세계복음화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램넛트 운동이 지속되도록 기도제목을 잡아야 되겠다. 재림 때까지 변하지 않는 램넛트를 세우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교회가 변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대열에 서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자.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틈을 타고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우리교회의 사명은 분명하다. 그 날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끝을 아는 사람이다. 끝을 보는 사람이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끝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은, 세계복음화와 주님의 재림이라는 언약을 안다는 말이다. 끝을 보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 응답의 시간표를 알고 말씀의 흐름을 안다는 말이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는 말은, 지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 되며, 우리 후대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우리가 후대를 이런 사람으로 세우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하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서 끝까지 가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을 세우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받아가자. 연말을 향해 달려가면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의 후대를 세우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을 살자. 오늘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고 세상을 살릴 언약의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다.

1. 시대를 분별할 지혜

제일 먼저, 우리 후대에게 시대를 분별할 지혜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을 가게 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1)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 복음 가진 자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증거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신천지 같은 악한 이단들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교회 안에도 가짜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했다. 그 마지막 때에 교회는 주님께 쓰임을 받을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14에, 반드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 노회가 전도캠프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강사로 오신 분이 있다. 그분 교회 앞에는 한국 모든 교회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 하나님의 교회 출입금지’ 이렇게 써놓았는데, 그분 교회 앞에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고 한다. ‘신천지 교인 대환영, 하나님의 교회 교인 대환영.’ 왜 그랬느냐 했더니, 우리교회 와서 구원받으라고 거기 따라가면 멸망하니까. 한번 우리 교인들 유혹할 때면 해 봐라 하고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으라고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았다. ‘맞다. 누구나 다 오라고 해 놓고 신천지는 출입금지 하면 되겠느냐.’ 전국 세계에 그런 현수막 붙은 교회는 거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교인들 중에 신천지가 유혹하면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 나는 그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여러분은 그들을 만나면 정확한 복음을 말해 주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 확실한 복음 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 바란다. 끌려가지 말고,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지 말고, 홍수 만난 강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피라미처럼 생명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란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어야 한다. 확실한 것을 보았다면, 그것으로 저들을 살릴 수 있다.

(2) 두 번째 열어주어야 할 시대 보는 눈이 있다. 바울도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온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다. 지금 딱 이 시대를 보고 기록한 것 같지 않다. 2천 년 전에 그것을 보고 기록한 것이다. 13절에 말씀하기를, 악한 자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시대의 흐름을 분별해야 그 흐름 속에 속지 않게 된다.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시대를 분별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우리 후대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그것을 전달해야 한다. 사실 우리 부모들이, 자녀가 시집가서, 장가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안 가르쳐준다. 그러니 세상을 아무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 덤비며 살아간다. 얼마나 힘들겠는가.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삶을 잘 가르쳐줄 필요

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62가지 행동 규범을 잘 숙지해서, 그것을 우리 후대가 잘 들도록 해 주고 알도록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엄청난 시대 변화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거기에 떠밀려 다닐 뿐, 사회를 구원할 수는 없게 된다.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뜨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축복한다.

(3)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환난 시대를 두고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주님은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셨다. 성경은 시대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문명은 발전하는데 정신과 인간성은 더 퇴보하고, 결국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어려움 중에는, 항상 반복되는 열두 가지 문제가 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이 문화화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비롯해서,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를 합친 것이 바로 이 열두 가지 문제다. 한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이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큰 재앙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좋은 시대가 오는 게 아니다. 그 흐름 속에서 복음 막는 세력 때문에 많은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누명을 쓰게 될 것을 말씀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교회가 변절하고 복음의 길에서 돌아설 것도 말하고 있다. 혼합주의, 다원주의 때문에 영적인 혼란이 오게 될 것도 이미 말씀했다. 세상의 흐름에 타협해서 복음을 상실할 교회가 많이 생길 것도 말씀해 놓았다.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내 동기 중에 김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다. 육군 중령 출신으로 늦게 신학을 공부한 분이였다. 나보다 20살 연상인데, 삶의 규범이 군인답게 참 철저했다. 그분이 한 이야기에 내가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 가정예배를 늘 드리는데, 아침에 찬양을 하고,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나가는데, 이웃 사람들이 그 집에서 들리는 찬송 소리를 부러워했다고 한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느끼면서, 늘 담 너머로 훑고 보며 가면서 부러워했다는 것이다. 그때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와서 뭔가를 행하니까, 한강변에 30만 명이 모이고 그랬다. 많은 목사들도 따라가 버렸다. 그런데 김 목사님의 딸이 말하는 것이다. “아빠, 이상해. 성경을 보니까 아닌데, 성경하고 틀린데 왜 저런 것을 따라가지요?” 성경을 계속 보는 동안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진짜가 아닌지 알게 된 것이다. 나는 김경환 장로의 딸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아니, 들어보면 모르나.”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이, 설교 들어보면 알지, 잘못된 말인지 옳은 말인지 금방 분별이 가야 하지 않나. 그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암만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시대를 바로 살아갈 수 없다. 들어봐도 모르겠는가. 제발 좀 알겠습니까 이야기 좀 해 보라. (웃음) 알겠지 않나. 이 환란의 시대, 혼란의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가 변하지 않고 복음 붙잡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 많은 땅, 많은 현장을 오셨다고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고가 나기 딱 좋은 것이다. 파주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많이 모아서 논밭을 산 분이 있었다.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는 문전옥답 좋은 땅을 주었다. 막내에게는 산 변두리에 있는 땅을 물려주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나라에서 문전옥답은 손을 못 대게 하고 산 변두리 땅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막내가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이다. 형이 너무 억울해서 동생에게 갔다. “형아, 너는 너무 땅이 많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으니 나눠서 좀 쓰자. 나 좀 다오.” “아니, 형님, 아버지가 제일 좋은 땅을 형님에게 다 드렸잖아요. 그것도 다 자기 분복인데.” 안 주는 것이다. 방에 가서 염증을 가지고 나와서 동생과 가족을 다 쫓아 버렸다. 아버지 제삿날에 그렇게 해 버렸다. 자기도 아이가 없었던지 그 충으로 자살해 버렸다. 논밭 많이 모아 보아야 가문이 멸망하는 것을 못 막는다. 그걸 쥐어 주는 게 아니다. 주지 말라는 게 아니다. 정신을 쥐어 주고 올바른 생각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주어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못 심으면 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보물, 그 진리를 가진 것을 감사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 이 생명을 전달해서,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당당히 이 세상을 맞부딪쳐서 승리할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2. 승리할 수 있는 비밀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후대가 이 어려운 시대를 두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한다. 세 가지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비밀을 모르면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겠는가. 우리 아들딸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어야 한다.

(1) 첫 번째 가져야 할 비밀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다. 어떤 위기, 어떤 문제가 와도 살아남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밀을 모르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다른 민족과 세계를 망하게 한다. 좀도둑이 된다. 그래서 살아남는 비밀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일곱 램넛트가 그 모델이다.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요셉은 노예였지만 살아남았다. 감옥에 갇혔지만 살아남았다. 총리가 되었는데 타락하지 않았다.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살아남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비밀을 가져야 한다. 아버지의 도움, 형의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남는 비밀을 가져야 한다. 인생은 결국 혼자 가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램넛트다. 끝까지 남는 자, 그게 램넛트다. 살아남는 자다. 일곱 램넛트가 가지고 있었던 살아남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서도 붙잡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듣기만 하고 참고만 하는 것이냐가 응답을 못 받는 것이다.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근본 해답인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끝내셨다. 너무 간단한 답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 모든 것을 넘어서실 수 있는 성령충만의 비밀, 사도행전 1:1 갈보리산, 사도행전 1:3 감람산, 사도행전 1:8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 말밖에 할 말이 없나, 저 귀한 자리에 서서 땀날 그 말만 하나 하는데, 안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닌가. 가지고서도 써먹지 못하니가 하는 말 아닌가. 이것을 가져야 한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것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것 하나로 살아남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종살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감옥살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총리 자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었던 요셉은 승리할 수 있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한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세상의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근본 복음의 해답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 그러면 살아남는다. 임금이 어떻게 대신이 어째서 못 한다,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 앞에서는 어떻게 변명할 수 있었는가? 환경이 어려웠습니까? 볼 속보다 어려운가? 어떤 분들은 ‘내가 부자 되면 할 거예요, 앞으로 부자 되면 할 겁니다’ 하는데, 그런 사람 치고 하는 사람을 못 봤다. 그 마음으로 지금 해 보라.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주님은 그 그릇을 보고 축복하신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이러하게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도 안 했다. 찬양대 할 수 있을 때 해라. 건강할 때 봉사하라. 온전해 보라.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못하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다. 어느 날 다리를 절게 되어 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스스로 살아남는 비밀을 가져라. 어렵지 않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가장 쉬운 것을 가르치고 있다. 참 믿음만 가지면, 참 복음만 가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성령충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2) 두 번째다. 너만 사는 비밀을 가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을 살렸다. 바로왕을 살렸다. 형제들을 살렸다. 가문과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다. 사무엘은 우상숭배 문화에 빠진 이스라엘을 살리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다.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오직 예수를 가지고 있었다. 이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다락방을 체험하고, 만남을 살리는 팀 사역을 체험하고, 가정을 살리는 미션 홈을 체험하고, 기능을 살리는 전문사역을 체험하고,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회를 체험해 보라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다섯 가지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내게 증거만 생기면 그것을 이야기하면 된다. 이번에 중직자대회를 했다. 중직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저런 사람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교인 전부와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던가? 저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던가?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가끔 고민한다. ‘우리가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왜 우리교인들은 그렇게 바쁜가, 왜 훈련받을 시간을 내지 못할까. 회한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안 보이면, ‘야, 참 이상하다.’ 나는 여러분을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내가 이분들에게 뭘 잘못 가르치고 있나. 뭘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 자신을 책해 본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설교하기에 움직이지 않을까. 왜 강력한 마음을 가질까. 왜 움직일 수 없을까. 이게 내 문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포기하라. 한 마디만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사람만 만나면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환경 상관없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이 상관없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을 전달해 주라는 것이다. “얘야, 너는 배워서 이 민족을 살려라. 얘야, 너는 부자가 되어서 이 민족을 살려라. 세계 살리는 사람이 돼라.”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어떻게 지팡이 짚고 가는 사람을 견어차고 쓰러뜨리고 조롱할 수 있는가. 학교에서 생기는 폭력 문제가 전부 그것 아닌가. 자기보다 못하다고 해서 두드려 패고 짓밟고 하고 있지 않는가. 나보다 약한 자가 있으면 가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안내해 줘야 하는 게 인간 아닌가. 짓밟고 죽이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인간인가. 그런 못된 모습을 어디에서 배우겠는가.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자. “얘야,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 받도록 해라.”

(3) 세 번째는, 정복하는 비밀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세계복음화의 끝 날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현장을 정복하고, 경제를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한다. 정복의 열쇠가, 세 가지 서밋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다.

① 지금도 사탄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램넌트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신다. 깊은 기도 속에서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서밋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다. 유명 대학을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램넌트를 대학 격정하지 마라. 대학에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려고 찾아다니는 시대 아닌가. 꼭 어디 가야만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초췌이 아니다. 제일 머리 좋고 제일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를 망쳤다. 그 속에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고 살리는 뭔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야 한다. 잘못 뿌리내리고 잘못 체질화된 것을 바꿔야 한다. “너는 너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 때문에 온 식구가 살고, 우리 마을이 살고, 이 민족이 살도록 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해야 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31-33의 말씀을 다시 보라. 그 생각을 가지면 너무 마음이 편하다.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없다. 영적 서밋 되시기를 축복한다. ‘나는 영적 서밋이다. 내 자녀가 영적 서밋이 되게 할 것이다.’

②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의 손이 함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기능 서밋이라고 한다.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회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좋은 머리로, 여기에서 뭔가를 빼내면 내가 뭔가 차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구나, 그러면 내가 모아서 다른 일을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망하는 것이다. 죽는 길인 것이다.

③ 이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면,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품을 남기게 된다. 제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문화 서밋이라고 한다. 우리가 하는 것이 다 문화다. 저질 문화도 있고 살리는 문화도 있다. 문화 흐름을 개혁하는 응답을 받으라는 것이다. 성령 문화의 전통을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 성령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악령충만한 아람과 이세벨이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반대로, 또 성령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아닌가. 문화 흐름을 개혁하는 응답을 받으라.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많은 고난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드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고, 로마서 11:25-26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열쇠가 바로 문화 정복이다.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여호와의 전통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고 이것을 두고 우리 램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가 올인 하자. 복음을 제대로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다. 오늘 본문 20절에,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속히 오리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이요, 그 날은 어떤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며 공의의 날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날에는, ‘하나님, 이 못난 자에게 이런 상을 주십니까’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참사랑 교우들이 다 되기를 축복한다. 그 날이 오면, ‘쥬기명야 나를 용납해 다오, 바위야 나를 좀 덮어 다오, 바닷물야 나를 용납해 다오’ 하게 되는 처참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다. 램넌트가 일어나서 세계를 살리는 그 날은 정녕 오게 될 것이다.

(1) 그 날이 올 때까지 결코 낙심하지 마라. 이 날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램넌트를 키우자. 절대 낙심하지 마라. 빌립보서 1:6에 말씀한다. “작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2) 그 날을 바라보면서 결코 흔들리지 마라. 로마서 8:31-39에 보니까, 아무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다.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했다.

(3) 그 날을 소망하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 마태복음 28:20에,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6:33은 말씀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기어 놓았노라.”

오늘 구약 본문 스가랴 13장을 보니까, 마지막 때 환난 속에서 변절될 자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3분의 2가 그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3분의 1은 끝까지 남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중에 속하시기를 축복한다. 정확한 숫자일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숫자일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남은 자를 볼 속에서 연단하고 시험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후대가 그 시험을 통과하여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심고 전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인정받는 응답받게 되기를 축복한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변치 않고 달려가고, 소망을 굳게 붙잡고 달려가는 참사랑 가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한다. 그 날이 올 때까지,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자.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자. 스스로 사는 것, 살리는 것, 세계를 주님의 명령대로 정복하는 비밀을 전달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이제 거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계속 말해 왔습니다. 주여, 가정들에 언약이 전달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릎을 세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참사랑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시수하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참사랑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